

“조계종, 도심포교 안 하면 10년 후 껍데기만 ...”

김응철 교수, 지난 10년 종교인구 등 분석결과 발표 ‘충격’

화엄회 정책 세미나서

지금처럼 조계종이 교세 위축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후 불교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9월 14일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정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교수는 특히 향후 10년 동안 불교인구의 감소를 예견하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불교 포교현황 분석과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응철 교수는 1995~2005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화엄회 정책자료집II>을 통해 불교계가 “도심 거점 포교당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종교인구에 대한 본격적인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5년 자료를 포함한 통계청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령별·지역별 종교인구를 교차분석한 결과 10년 후 종교지형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불교계는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향후 100여개 이상의 도심포교 사찰이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조계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화엄회 정책자료집II>에서 용주사 범어사 봉선사 등 교구부사 주변의 도시화가



화엄회는 정책모임으로는 처음으로 9월 14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종교인구 변화에 따른 종단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가속화 되면서, 이들도 도심 사찰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도심포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도 거론했다.

특히 강화군(불교 인구 16.7%)의 경우 전등사 보문사 같은 우수한 사찰이 관광사찰로 전략하면서 지역과 단절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유명 교구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교수는 대안으로 “조계종은 수도권을 비롯한 신흥도심지역에 도심포교사찰을 만드는 것은 물론, 각 교구부사별로 도심에 포교당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런 곳에 종단의 역량 있는 스님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해 다양한 성공사례가 만들어져야 불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화엄회 간사 덕문 스님은 “지역 불교계 단체들도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축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실뎀’ 대표도 “불교가 우리사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를 강조했다.

또 “본사급 사찰이 포교위원회와 지역포교위원회를 조직해 포교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하촌에서부터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기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상징이 될 지역의 대표사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엄회가 조계종 13대 중앙종회 정책모임 최초로 실질적 포교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화엄회 정책자료집II>은 전국 지자체 230여 곳의 1995~2005년 동안 연령별·지역별 종교인구의 변화를 분석해, 일선 포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9월 14일 021515-9351

글·사진=조용수 기자



“조선왕실 의례도 반환하라”

<조선왕조실록> 반환의 일등공신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가 이번에는 ‘조선왕실의례’ 찾기에 나선다.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공동대표 정남·철안·김원웅)는 9월 14일 광화문에서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의례반환요청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글=노병철 기자·사진=고영재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선거 10월 26일

10월 18일까지 후보 등록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광)는 9월 15일 제60차 회의를 열고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10월 26일로 확정했다. 종회의원 후보 등록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이며, 후보 자격 심사는 10월 20일이다.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은 10월 23일 오후 2시, 교구선거

인단 확정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23일 3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선관위회의에서는 제16교구 고운사 주지후보 호성스님의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인단을 65명으로 확정했다. 또 21일로 예정됐던 관음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공고가 늦어져 무효 처리하고, 일정 재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국제포교사 고시 11월 12일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불법을 전할 조계종 국제포교사 선발 고시가 11월 12일 오후 1시 치러진다. 선발 고시는 영어 분야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 과목은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특징 △포교방법론 △일일반상식 등. 단답형, 논술형으로 해당 응시언어로 출제된다.

면접에서는 해당언어 어학능력 구두평가와 의식집전능력, 포교사로서 기본 소양을 점검한다. 0212011-1895, buddhism.or.kr

남동우 기자

백양사 새주지 후보 성오스님

고불총림 백양사는 9월 11일 항전사에서 임회를 열고 신임주지후보로 성오(성오)를 추대했다. 신임주지후보 성오 스님은 1959년 백양사에서 장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 69년 서옹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주 심향사 주지와 조계종 11,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 광산구 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불가피한 사유’ 봐주려다 ‘특정인 의식’ 등 맹비난 자초

조계종 중앙종회 ‘종무원법’ 개정 ... 일파만파 재개정 요구 거세, 재가연대 22일 긴급간담회

조계종 13대 마지막 총회였던 171회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3개 법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종원법제개정기초위원회(위원장 황적)가 제시한 개정원안 제6조 1항의 7호에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종무원 임용을 막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그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애초 기초위가 종무원법 개정에서 나온 것은 그동안 종단개혁, 민주화 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무직 진출이 불가능 했던 스님들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제6조 1항에 단서조항 ‘다만 제7조 내지 제9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원법제에 따른 종무원법 제정 행위 또는 사찰불사, 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민주화, 환경보호, 통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엉뚱하게 1항 7호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종무원 취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까지 명달야 수정해 이 같은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조계종 일부 소장파 스님들은 이번 종무원법 개정이 “범죄 경력이 있는 특정인들의 중앙종무직 진출을 염두에 둔 의도적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6조 1항 7호 수정통과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6조 1항의 단서조항에 기초위 안에는 없었던 ‘사찰불사’라는 단어

가 삽입된 것도 문제다. 불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횡령, 과도한 불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설사암 미등록 전매 등의 행위도 모두 불사로 인한 행위라고 우기면 종무원 취임에 문제가 없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개정된 종무원법에 따라 종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된 것이다. 선출직종무원 신분인 중앙종회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거나 복권된 자’라면 얼마든지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승가교시법’은 ‘다’목 ‘교구부사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서 4년 이상 종사한자’를 신설하려 했던 기초위의 의도와는 달리 임명권한이 말사주지까지로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1995년 출가자들이 승랍 10년이 되는 해부터 적용될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전문교육 기관(승가대학 등) 수료나 선원 4단계 성만, 박사학위 이수 등으로 제한한 것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사실상 교육원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말사의 소임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3급 승가고시 자격 요건 때문에 젊은 스님들이 분발사 주지들에게 예측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9월 22일 오후 7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이번 조계종 중앙종회 종법개정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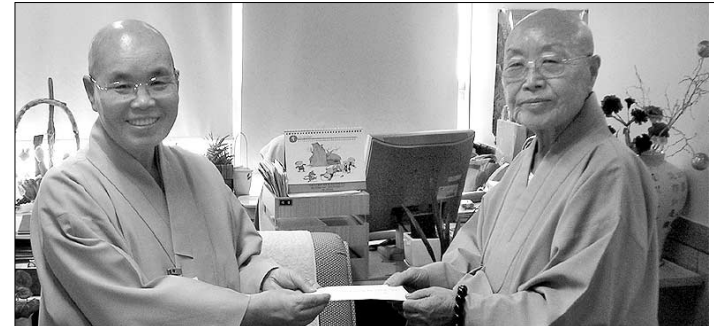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광우 스님 ‘아름다운 후원’ 화제 ... 복지시설·가사봉사·선원에 회사

비구니계 원로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서울 정각사 주지 광우 스님(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사진 오른쪽)이 잇따른 보시로 화제가 되고 있다.

9월 14일 광우 스님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사진) 등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등 5곳에 후원금 1000만원 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8월 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에도 수해성금 1000만원을 전했고 통일가사봉사, 문경 봉암사선원 등에도 각 1000만원을 보시했다. 광우 스님은 세수 80을 넘긴 고령에도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정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은비 기자

승니 / 포교사 신분증 갱신 및 제적공고

1. 당 종단 소속 승니 및 포교사 중 정관 제6조, 7조 및 종헌 제18조, 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회원, 의무위반자, 회원자격 미달자를 2006년 8월 1일부터 제적 처리합니다.

2. 제적자 현황(총 62명)

가. 마산 창원지역 (5명)

이선이(보현), 신명자(금림), 문금순(보림), 송정향(법해), 윤복순(대림)

나. 부산지역 (6명)

송차돌(춘광), 최진목(용산), 엄대흥(능행), 차용자(청정), 김봉순(구품), 강수영(도우)

다. 울산지역 (14명)

변영기(정각), 장남식(성도), 이말숙(수련), 남영미(혜련), 김정순(자원), 고삼순(덕행), 유점순(정행), 박경영(무상), 유도선(자일), 김귀녀(주련), 김재순(공덕), 최판순(법계), 이종효(효림), 김형봉(원력)

라. 대구지역 (29명)

정정기(행원), 정문희(만행), 심순자(일행), 심해숙(법행), 황정희(덕불), 전상업(광불), 이옥화(선유), 유병곤(위덕), 김순자(원경), 홍덕순(덕암), 최인숙(덕상), 원정선(법암), 허준순(덕유), 이규자(법성), 박미희(용수), 이홍규(대룡), 한미애(보리), 신형갑(혜행), 홍정숙(청공), 신옥순(정수), 예종임(법행), 노성순(대승), 김기천(일말), 전운포(도문), 유재문(운산), 최점순(연일), 김신숙(련화), 이경선(화목), 김순례(대명)

마. 하동지역 (1명) - 오옥자(청심행)

바. 경산지역 (7명)

이갑생(성희), 노정숙(정해), 서순정(위락), 이순선(봉산), 정현득(대각), 최해자(덕수), 박홍식(화엄)

3. 당 종단에서 제적된 분은 당 종단에서 발행한 승려증, 포교사증, 사원등록증, 주지임명장 등 제증명서는 2006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일체 대 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신분증 갱신

가. 당 종단 소속 승니 및 포교사 신분증, 사원등록증 등 제 증명서를 2006년 8월 1일부로 신양식에 의하여 일괄 갱신합니다.

나. 2006년 8월 1일 이전 발급된 신분증, 사원등록증 등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일체 대 내·외 사용을 금합니다. (사업자등록, 기부금영수증발급, 신분제시 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총무원 총무원장 박자인 정화위원장 김대력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 055)672-4394